

## 우리나라, 프랑스 미스트랄 대공미사일 구입

— 금성정밀 등 국내업체와  
절충교역 25% 예상 —

**프랑스** 무기및 전자제품 회사인 마트라 데팡스 에스파스社가 우리나라와 1억8천5백만불 상당의 미스트랄 대공미사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 회사의 노엘 포르제아르 사장이 1월 21일 밝혔다.

이번 미스트랄 미사일 구입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3단계 단거리 대공 미사일체계 구축계획의 첫번째 단계이며, 앞으로 4~5년간 약 5억 5천 2백만불 상당의 미사일 구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. 마트라社가 나머지 계약을 모두 따낼 경우 한국은 미스트랄 미사일 최다보유국이 된다. 현재 세계적으로는 미스트랄(사진▼)과 함께 미국의 스팅어와 영국의 스타버스트등이 명성을 날리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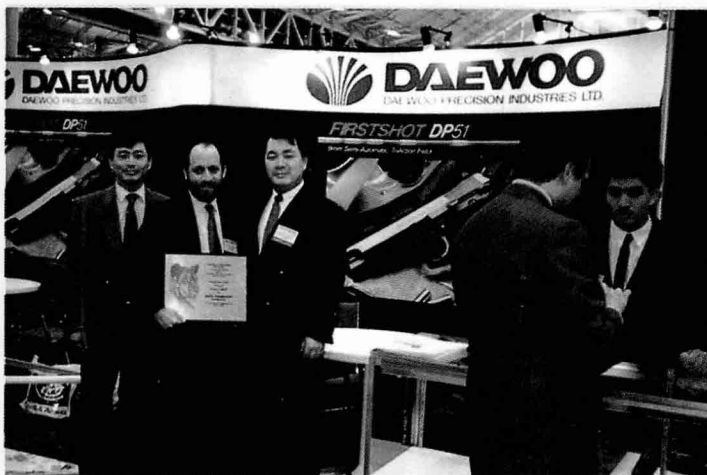
이 무기체계 구입계약에 따라 금성정밀(7% 내외)등 국내업체와 25%의 절충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

미스트랄(Mistral) 대공미사일 주요 제원

구 분	내 역
총 길이	1.80m
구 경	90mm
중 량	19.5kg
탄두 주요 중량	3kg
유효사거리	6km
추진 속도	800m/초(마하 2.5)
유도 방식	Fire-and-forget

## 大宇精密, 「Shot Show '92」 전시회 출전



**대우정밀**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「SHOT SHOW '92」에 9밀리 DP-51 권총을 출품했다.

약 1천5백여 업체(판매회사 포함)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DP-51 권총은 미국은 물론 세계 유수의 총기제조국인 독일, 벨기에, 그리스 등의 유럽지역과 중동, 동남아시아에 까지 폭넓게 알려지게 되었다